



왜 일해야 하는 걸까요?

4. 나의 최종 점수는?

Opening Talk

오프닝 토크



다음의 평가표를 통해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 평가해보라.

(주부라면 주부의 일, 학생이라면 학생의 일, 알바생이면 알바의 일, 직장인이면 직장에서의 일 등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평가하면 된다)

평가척도: 1-5점 (5점-아주 잘함; 4점-잘함; 3-보통; 2-못함; 1-아주 못함)

탁월성

-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자신이 있다. ()
- 자신의 일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하려고 늘 연구한다. ()
-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책임감 있게 자율적으로 한다. ()
-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애쓴다. ()

총점()

사명감

-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한다. ()
-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한다. ()
-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함에 있어 양심에 거리끼는 일은 전혀 하지 않는다. ()
-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한다. ()

총점()

팀워크

-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있어 다른 멤버와 팀워크를 잘 이룬다. ()
- 상대방의 의견에 개방적이고 객관적 태도로 임한다. ()
- 타인의 피드백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한다. ()
- 자신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존중을 받는다. ()

총점()

- 가장 총점이 높은 분야와 낮은 분야는 무엇인가? 결과가 그렇게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말해보라.
- 하나님께서도 현재 우리가 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을 평가하실까? 하신다면 어떤 기준으로 하실 것 같은가?

Biblical Point



바이블 포인트



이 과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살펴 볼 것이다.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 생각해 보자.

1. 건축물의 비유가 가르쳐 주는 일의 평가(고전 3:10-15)

고린도전서 3장 10-15절을 읽어 보자.

10.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11.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12.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13.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14.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 부분의 사도바울의 글은 비유를 한 것이다. 우리 모두가 집을 짓는 건축가라고 생각해 보자. 일단 단단한 터 위에 집을 지을 것이다. 모래 위에 짓거나, 진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집을 짓는 터는 아주 튼튼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곳이다. 바로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위에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사도바울은 두 가지의 집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하나는 나무, 풀, 짚으로 대변되는 불에 쉽게 탈 수 있는 재료로 지은 집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금, 은, 보석으로 대변되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지은 집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불에 타지 않는 값비싼 재료의 집을 지을 수 있을까? 이 말씀은 비유임을 다시 한 번 염두에 두어야 한다.

15절에 “자신은 구원을 받되”라는 말씀으로 보아 ‘구원’에 대해 가르치는 구절이 아니라, 구원 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 가르치는 구절임을 알 수 있다. 1절에서 사도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라고 질책하는 문맥 안에서 보면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의 대조가 나온다. 그러므로 이 비유에서 불타지 않는 재료로 집을 지은 이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산 자들이며, 불에 탄 재료로 집을 지은 자들은 육신에 속해 산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¹

그들의 삶의 결과를 불로 태워보아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불 가운데서 간신히 빠져 나온 사람을 보면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잃고 말이 아니다. 어떤 상을 받고 어떤 해를 받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구원은 받되 공적이 불타면 전혀 받을 상이 없는, 불 가운데서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이, 간신히 빠져 나온 모습의 구원이 될 것임을 가르쳐 준다.

사도바울은 또 다른 구절에서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후 5:9-10)라고 말한다. 이는 우리 삶의 평가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려 준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행한 것을 선악간에 평가하신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자신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다’라고 말한다. 평가 받을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일터에서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마 10:42)

는 말씀이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영속적 가치가 있음을 효과적으로 잘 표현해 주고 있다. 우리가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방식을 따라 일을 수행하는지,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는지, 나 자신의 육신의 성공을 위해 일하는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일하는지, 육신의 욕구대로 일하는지 등등 많은 것이 행한 대로 평가될 것이다.

2. 달란트 비유가 가르쳐 주는 일의 평가(마 25:14-30)¹¹

일의 평가에 대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 가장 의미심장한 비유의 하나가 달란트 비유이다. 이 비유는 투자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 부자가 자신의 부를 종들에게 맡기는데, 그 모습이 마치 오늘날의 투자자들이 투자 시장에서 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는 한 투자자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두 번째 투자자에게는 두 달란트를, 그리고 세 번째 투자자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겼다. 그 중 두 명은 열심히 일해 100% 이익을 남겼지만 세 번째 종은 그 돈을 땅에 묻어 두고 한 푼도 벌지 못했다. 부자가 돌아와서 돈을 번 두 종들에게는 상을 주었으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에게는 가차없이 벌을 주었다.

주인이 그 결과와 방법,
그리고 동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인은 신실한 두 종들에게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마25:23)라고 칭찬한다. 이 말에서 우리는 주인이 그 결과와(“잘 하였도다”), 방법(“착하고/선하고”) 그리고 동기(“충성된”)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 “잘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의 결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이 비유에 따르면 그러하다. 우리는 일을 잘해야 한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주어진 일에 ‘탁월함’을 보이는 데에 인색하다. 그것은 회사 일이고, 세상 일이라는 이분법적 구조가 머릿속에 깊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세상에서의 출세를 영적이지 않다고 보는 사람도 많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세상에서의 일이 소명이라면 그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일의 결과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두 종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로 일을 잘해서 수익을 많이 남겼다.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서 우리의 교육, 경험, 지식, 사회적 지위, 기술, 능력, 네트워크 등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포함한다. 그것을 가지고 생산성 있게 살라고 주신 것이다. 인류와 국가와 사회와 교회에 많은 공헌을 하기를 바라시고 주신 것이다.

그런 은사를 땅 속에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이익을 남기지 못해서 정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주인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정죄를 받은 것이다. 생산성이 없는 종에게 ‘무익하다’ ‘쓸모없다’고 말씀하신 이 무서운 처벌은 우리의 인생을 쓸데 없는데 낭비하지 말고, 어딘가에 하나님의 뜻대로 투자해야 함을 잘 말해주고 있다.

때로 그리스도인들은 성장이나 생산성 그리고 투자 이익 같은 것들이 하나님께 기록하지 않은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이 비유는 그런 개념을 뒤집어엎는다. 이 달란트 비유와 유사한 열므나 비유(눅 19장)에서는 아예 종들에게 장사하라, 즉, 비즈니스를 하라고 명령한다. 그러기에 우리는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의 기술과 능력을 투자해야 하며, 더 나아가 우리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쓰라고 제공해 주신 모든 부나 자원들을 창조명령을 이루기 위해, 인류가 운택하게 잘 살기 위해 써야 한다.

방법: “착하고/선하고”

‘착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으로 일을 한 것을 의미한다. 사업을 하든, 물건을 만들든, 서비스업에 종사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으로 하지 않았다면 ‘착하다’는 칭찬은 듣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결과(“잘 하였도다”)만 보시지 않는다.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신다.

이사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며 그 이유는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고, 행악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다.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라고 하신다(사 1:15-17). 우리의 투자 방식, 사업하는 방식, 일터에서 일하는 방식이 의롭지 않을 때 잘못된 방법으로 번 이익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것이라고 강하게 말씀하신다: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신 23:18).



동기: “충성된”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에게 충성하는가를 평가 항목에 넣으신다. 어떤 이들은 정말 열심히 탁월하게 일한다. 그 모습이 가상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나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일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40)는 마태복음의 말씀은 하나님께 충성된 것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동일한 것임을 잘 가르쳐 준다. 요한일서에서도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요일 4:20)라고 말한다.

우리 ‘삶과 일’에 대한 최종 평가는 하나님께서 내리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연봉(?)을 결정하실 분이시다. 우리는 혹시 지금 ‘설마 예수님이 그렇게 빨리 오실라고!’,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오시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 때문에 나에게 맡겨 주신 달란트를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일하는 모든 것이 다 평가를 받을 것이다. 학교에 다니지 않으니 성적표에서 해방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놀랍게도 영원한 성적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 위의 글을 읽고 새롭게 깨달은 점이 있다면 나누어 보자.

- 일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택했던 경험이 있는가?

FWIA Voice

요약정리



나의 생명, 부모, 두뇌, 건강, 환경, 국적, 교육 등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주인(하나님)의 뜻에 따라 열심히 생산력 있게 일해야 합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주인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은 악한 종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주인이 맡겨 주신 것을 가지고 선하고 충성되게 일했느냐'가 주인의 일 평가 방법입니다.

i 많은 학자들이 이 비유에서의 대상을 영적 지도자들로 한계 지어 해석한다. 일차적으로는 그럴 수 있으나 좀더 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견해들도 많이 있다. Craig L. Blomberg, *1 Corinthians*,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1994), 74를 보라. 또한 동일한 주석의 ft. 5의 Leon Morris, *The First Epistle of Paul to the Corinthians* (Grand Rapids: Eerdmans, 1985), 65를 참고하라.

ii 이 부분은 TOW에서 많은 부분을 발췌했다.

FWIA BUCKET

